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유일자도밥은먹어야산다

슈티르너주의적사변思辨, 혹은사변邪辨에관한혁명적·조
직지향적아나키스트의사변私辨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유일자도밥은먹어야산다
슈티르너주의적사변思辨, 혹은사변邪辨에관한혁명적·조직지향적아
나키스트의사변私辨
2020.10.8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10592059>]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10.8

차례

0. 서문, 혹은왜이런도발을하고있는가에관하여	3
1. 슈티르너주의적사변 (愚辨)	3
1) 오릇한유일자는존재할수있는가	4
2) 유일자도밥은먹어야산다.	6
2. 슈티르너주의적사변 (邪辨)	8
1) 혁명운동적관점에서슈티르너주의	9
2) 조합운동, 조직운동적관점에서슈티르너주의	13
3) 유일자라는망령에관하여	14
3. 이에관하여, 사변 (私辨)	15
마지막. 다시한번, 왜이러한도발을던지는가.	16

0. 서문, 혹은왜이런도발을하고있는가에관하여

요즘들어간헐적으로슈티르너에관한이야기를듣는다. 현대사회주의운동에있어슈티르너의중요성이높다고도한다. 솔직히이해할수가없다. 슈티르너에대해아무리고민을해보아도그의사상이이론적으로특출하다는생각이들지도않고, 실천의기반이되기에도너무나어렵다는생각이들뿐이다.

물론슈티르너에대한학습, 또는고민이부족하여그런것일수도있다. 슈티르너에관한서적은사실상출판된것이없고, 기껏조금씩나오는것이라고해봐야슈티르너를마르크스와니체와헤겔과포이어바하와비교하는대상으로사용하고있을뿐이다. 물론, 솔직히말해서일평생남긴문서가 500 페이지가되지않는학자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바라는것도우스운일일것이고말이다.

그렇기때문에이글을작성한다. 이글에대해슈티르너를사랑하고, 그의사상이혁명적사회운동의기반으로써유의미하다고생각하는이들의가열찬반박과그로비릇할토론을꿈꾼다. 나아가그토론의과정에서그들이주장하는슈티르너의유의미성을우리도납득할수있게되기를바란다.

이글은아나키스트라이브리번역및아카이빙프로젝트진행중이번역한두편의글, 〈슈티르너: 유일자와그소유〉, 〈막스슈티르너와아나키즘적코뮌주의의관계〉에관한서평도검한다. 전자는 1907 년에, 후자는 2017 년에쓰였다. 100 년의간극만큼이나두글은서로상이한견해를가지고있다. 사실상슈티르너에대한비판과찬동의글을모두살펴볼수있었다.

1. 슈티르너주의적사변 (思辨)

『유일자와그소유』를영어로살펴보고 (때문에오역및오독의가능성이있다는것을부정하지않는다. 이글에대한비판은우리가오독한부분에대한비판또한검하여주기를바란다.) 관련한글을읽으면서지속적으로제기할수밖에없었던생각이있다. 슈티르너의이상이물질세계에서펼쳐지는것이가능한가? 라는부분이다.

슈티르너가논하는것처럼오롯하게개인의개별성을확립하는것, 그리고그개별성을통해세계를자신의것이라선언하는것은미美적이며아

를답다. 하지만모든사회적철학은, 그유토피아적목표에있어서는아름답다는점을짚고넘어가야만한다. 파시즘도, 전체주의도, 심지어자본주의도, 그목표가아름답지아니하면사회사상으로서성립할수가없다. 그렇기에특정한사회철학이단순히철학자의망상이아니라유의미한이데올로기로존재하기위해서는그철학을물질적세계에적용할수있는방법이함께제시되어야한다.

물질계에서, 물리법칙에기초해살아가는인간의육체는안타깝게도너무나도큰물질적제약조건들에둘러싸여있다. 거칠게말해서, 인간은밥을먹지않으면죽는다. 그리고인간의정신은, 육체의한계를뛰어넘지못한다. 육체가죽으면정신도죽는다. 그렇기에물질적제약조건하에서성립할수없는관념은, 그저관념일뿐이다. 사변思辨일뿐이다.

그렇다면막스슈티르너가 『유일자와그소유』 에서주창한바개인주의, 혹은에고이즘은어떠한가.

1) 오롯한유일자는존재할수있는가

슈티르너와 『유일자와그소유』 는, 책의제목에서도명확히알수있듯이“유일자”의“개별성”과“유일성”을계속해서부르짖는다. 오롯이존재하는“나”와“나”의이해관계에따르는행동, 에고이즘이곧올바른원칙이라고말한다. 이로부터그유명한경구, “나는어떠한대의로부터도비롯하지않는다!(I have set my cause on naught!)”가등장한다.

참으로그러하다. 모든인간은어떠한대의로부터도비롯하지않는다. 모든인간은자신의이득에기초하여행동하고살아간다. 인간이자신의행동에, “나”가아닌더큰대의를, 때로는조직을, 때로는집단을, 때로는국가를, 때로는종교를, 때로는인류를, 때로는이념을, 때로는계급을앞세우는것은, 분명하게기만적인일이다. 인간이대의에복무하는것은자신의이득에복무할때에만그러하다.

하지만여기에서하나의이야기를해보자. 우리는방금‘인간이대의에복무하는것은자신의이득에복무할때에만그러하다.’라고이야기했다. 그렇다. 인간은자신의이득을위해, 에고이스트적으로, 언제라도대의를만들어내고, 그에복무할수있다.

교조주의를타도하고, 법마저타도하라.”

하지만우리에게이것은슈티르너에대해비꼬는것으로들린다. 우리는왕도타도하고법또한타도하고, 교조주의도타도해야한다. 하지만그타도는그저외침으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그타도는경제와물질에근거한대중의민주적조직의자발적직접행동으로이루어진다.

우리는왕을타도할길을찾을것이다. 그타도이후에슈티르너주의자들이법또한타도하라고외친다면그법또한타도할길을찾을것이다. 우리는당신들처럼그저타도하라고외침기만하기보다는, 왕과법에돌맹이를하나더던질것이다.

마지막. 다시한번, 왜이러한도발을던지는가.

2020 년현재, 코로나 19 사태의장기화로우리모두는침체되어있다. 직접행동을주문하고있지만대중들이거리에서나서는것자체를무서워한다면어찌할도리가없다.

하지만그렇다고가만히있을수는없다. 더침체될수는없다. 그렇기에우리는스스로‘아나키스트’라고자칭하는모두에게감히이고민을던진다.

분명히과하게공격적이고도발적인글이다. 하지만이렇게함으로써이글에분노한독자들의격정적이고진심어린반론을끌어낼수있다면그야말로우리가원하던일이다.

아나키즘은평화를추구하는이념이지만결코평화로운이념은아니다. 오히려새로운사회를향한대중의혁명, 반란, 반역의가장날카로운칼날이되어야만한다. 이글이촉발할수있는우리내부의이론투쟁과논쟁으로우리의칼날을더날카롭게벼려서반드시다가올사회혁명의때, 체제를향해휘둘러지기를바란다.

그리고우리「아나키스트연대」는조직을지향하는아나키스트로써, 오히려인간은가장에고이스트적이기에가장코뮌주의적이라고주장한다.

크로포트킨이『상호부조론』에서말한것이이와같다. 크로포트킨은『상호부조론』에서인간이공동체를구성하는것은생물로서자신의생존(이득)을극대화하려는과정에서만들어낸결과물임을밝힌바있다. 코뮌은신성불가침의것이아니라, 에고이스트적인간의공동체인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홀로생존할수없다. 오롯한개인은자연을이겨내지못한다. 오롯한개인은홀로생산할수없다. 오롯한개인은번식할수없다. 그렇기에인간은유일자로서, 에고이스트로서, 자신의생존과최대이익을위해함께하기를선택한다. 그선택의과정에서자신의개별성이일부손실된다하더라도그손실의크기가이득의크기보다작은한, 그대의에복무하기를자율적으로결정한다.

이것이망령에복무하는것인가. 그렇다고하기위해서는둘중에하나의선제적논거가필요하다. ① “대의”라는것은선험적인것이어서, 인간이만들어낸것이아니고, 인간이거기에복무할지말지를결정하는것이거나 ② 인간은너무나도어리석어서, 한번“대의”에복무하기로결정한다면, 나중에그“대의”가자신의이익을해한다하더라도, 그에반란하지못하거나.

그리고두논거모두가, 일정부분파시즘의근거가된다. 파시즘은선험적국가(집단)에최대한희생적으로복무하는것이자기의(혹은자기의유전적·비유전적후손들의)이득에복무하는것이라는논리에서비롯한다. 파시즘은개별인간들은너무나도어리석기에, 계몽되고집단을이끌어갈수있는“유일자”, 혹은“파쇼”가인간을이끌어야한다고바라본다.

모든“망령”은, 그리고그“망령”에대한복무결정은, 인간이에고이스트로써자발적으로구성하고결정한것임을잊어서는안된다. 그래야만인간이“망령”을해체하는것역시자발적으로할수있는것이라고주장할수있다. 슈티르너와같이, 현재인간이“망령”에복무하는것자체를문제시한다면결국은너무나도에고이스트적이어서파시스트가되는, 형용모순적인일이발생할수밖에없다.

인간이공동체를, 집단을, 슈티르너가“망령”이라부르는그무엇들을구성하고, 그“대의”에따르는것은인간이에고이스트적판단을거쳐결정한것이다. 그렇기에그“망령”이“개별성”에가하는해악이커서, “망령”을

떨쳐내야한다고생각한다면그것은“망령”보다더큰이익을제공하는무언가를제시해야만가능하다.

유일자도밥은먹어야살기때문에“망령”을떨쳐낸개인이어떻게경제생활을, 생존을이어갈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한것이다. “망령”에복무하는것보다오롯한‘유일자됨’이더생존에유리하다는것을확립해야하는것이다. 그런데그것이가능할리가.

2) 유일자도밥은먹어야산다.

그렇다. 유일자도밥은먹어야산다. 하지만밥은혼자서는만들수없다. 슈티르너가『유일자와그소유』를쓴당시인 19 세기중반에는어땠는지모르겠지만최소한 2020 년현재에는그러하다. 산업의고도화는가장단순한생필품하나조차개인의힘으로만들어내지못하게만들었다.

아무밥집이나들어가서공기밥한공기를시킨다고해도, 그공기밥에는중국의쌀농민과, 베트남스테인리스식기제작노동자와, 그것들을한국으로운송하는필리핀선사들과, 한국에서도매상으로운송하는화물노동자와, 식당에서그밥을하는조선족노동자의노동이들어가있다. 그리고이러한노동들이만들어낸높은생산성이, 우리가밥을먹을수있게한다.

누군가는묻는다. 그러한산업의분절화, 국제분업체계가문제인것이아니냐고. 물론산업의분절화나국제분업이노동의소외를촉발하고있음은자명하다. 하지만여기에서문제가되는부분은분업그자체인가, 아니면노동의소외인가. 당연히게도노동의소외이다. 그런데왜문제의본질이아닌, 산업의분업화철폐를이야기하는가. ‘모든인민이풍족하게누릴수있는생산성’이사회주의의기반인데어째서생산성을낮추는것이필요불가결한것인것처럼이야기하는것인가.

무엇보다중요한것은분업을통해산업사회가확보한생산성이자급자족이가능한, 1 인완결적인노동으로돌려놓았을때, 사회의전반적생산은인민들각각에게돌아가는‘밥’의양은분명히줄어들게된다는것이다. 이럴때“유일자”는어떠한선택을하게되는가. 내가덜풍족하게살더라도세상만사로부터자유로울것인가, 아니면자유를포기하더라도더풍족할것인가. 그답은인류의역사가충분히보여주고있다고생각한다.

3. 이에관하여, 사변 (私辨)

분명히말하지만우리는슈티르너라는개별철학자의의미를부정하지않는다. 산업이고도화되지않고덜분절화되었던, 개별인간의생산력에많은것을의존하던당시의맥락을고려하면슈티르너의기대가타당했다고바라볼수도있다. 산업혁명을통해증대된개인의생산력을바라보며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개인의노력만으로생산의영역을대체할수있는시대가곧도래하리라고믿었을수도있다.

무엇보다우리는슈티르너의관념론적세계관이해방된사회에서각개인의지향점을제시할수있다는의미를인지한다. 분명하게도슈티르너가말하는온전히개별성을확보한개인 (“유일자”) 들이구성하는사회상은아름답다. 슈티르너와같이개인에집중하고, 개인의이득을극대화할수있는사회를만드는것이, 아나키스트적사회혁명의기저임은분명한사실이다.

하지만우리는 2020 년한국사회에서혁명을꿈꾸고있다. 2020 년의한국사회는고도로산업화되어《산업적분절》없이현재의편익을개인들이누릴수없다. 조선사회, 일본령조선사회의“유일자”들은슈티르너가바라보는것과같은곳을바라볼수있었을지몰라도현재한국사회의“유일자”들은그러하지않을수밖에없다.

또한슈티르너의개인관이혁명이후의개인에게유의미할수는있지만혁명까지가는길을제시하지못한다면그것은그저사변적잡설에불과하다. “유일자”가“의지적에고이스트”로써세상만물을자신의“소유”라선언하면무엇하는가. 물질화된“망령”, 우리가말하는‘괴물’들은그시도를바로진압할텐데.

엥겔스는슈티르너에대해다음과같은시를헌정한바있다.

“슈티르너를보라, 그를보라, 모든억압의조용한적.
그순간, 그는여전히맥주를들이키지만,
머지않아피를물처럼마시게될것이다.
모두가사납게“왕을타도하라”외칠때
슈티르너는즉시“법또한타도하라”답한다.
슈티르너존엄히선포하니
네가자신을굽히고감히자유롭다칭할때
너는곧노예제에익숙해지리니

다시 한번 슈티르너주의자들에게 묻는다. 에고이스트로서 대중이 에고이스트적으로 선택한 조직, 집단을 비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3) 유일자라는 명령에 관하여

원론으로 돌아가서, 슈티르너가 말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명령”이 개인이 아닌 외적인 존재로써 개인을 규율하고 그 명분이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슈티르너의 “유일자”, “개별성”에 대한 집착 역시 “명령”에 불과하다고 바라본다. 인간은 혼자서는 물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집단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지닌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별성”을 포기하는 것도 한 인간이다.

슈티르너의 삶을 보자. 슈티르너는 결혼 (혹은 그에 준하는 연애) 를 두 차례 했다. 슈티르너는 대학교수 취업에 실패했고, 돈에 궁해 지다 보니 방세를 내지 못해 채권추심자들에게의 해감옥에 가기도 했다. 슈티르너는 우유 배달 사업을 시도했고, 실패했다. “유일자”를 이야기한 슈티르너의 개별성이 관계에, 직업에, 명예에, 돈에 의해 끊임없이 좌우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슈티르너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관념적 “개인”이 아닌 물질적 ‘인간’에게는 온전한 “개별성”을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기에 “유일자”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의 지향성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유일자” 역시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현대 슈티르너주의자들에게서 다시금 바라본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개별성”, “독자성”, “유일자됨”은 포기할 수 없는 지향점이라 바라본다.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조직을 거부하고, 사회 변혁 운동을 거부한다.

“슈티르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어떠한 대의로부터도 비롯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이나 키스트들은 슈티르너로부터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슈티르너의 옹호자들은 슈티르너 역시 공동 노동의 즐거움을 역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경쟁적이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요구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합의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다분히 사변적이다.

이것을 모르는 이가 있는가. 자본주의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책임을 지는 공동 생산을 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는 사회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물리적 현실의 층위를 보자. 현존하는 체제에서 그러한 공동 생산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지의 식적으로 각성한 에고이스트 몇몇이 ‘공동 생산을 해보자’고 결의하는 것만으로 공동 생산의 체계가 완성되는가? 생산에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원자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생산물의 분배 및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슈티르너는 이에 대하여 전혀 답을 주지 못한다. 이 답이 있었다면, 슈티르너가 기획한 ‘청년 해방 학과가 소유하고 협력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우유 배달 사업’이 그리처럼 참하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 후반에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보다 사변적이다. 이처럼 공동 생산된 생산물을 오롯이 유일자의 소유로 돌릴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공동 생산의 과정에 투입된 것들은 결코 그 공동 생산 집단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그 생산 기계를 만들었고, 누군가는 원자재를 채집했고, 누군가는 생산의 과정 동안 공동 생산 집단이 먹고 살 밥을 만들었다. 더 깊게 보자면, 그 생산의 과정을, 생산 기술을 고안한 수천 년 인간사의 결과물이 공동 생산의 결과물이 된다. 그것을 슈티르너의 “에고이스트 동맹”이 자신들의 “소유”라 선언한다는 사실이, 어딘가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자본가가 생산물의 사적 소유를 선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슈티르너의 사변적 사유 어디에 선가는 이것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이 “유일자”로서 모든 생산물이 자신의 소유라 선언하고, 그 소유를 함께 누리는 것 말이다. 하지만 이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모든 인간을 해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명령”에 복무하는 다른 인민들의 비에 에고이스트적 생산 활동에 의존하는 “에고이스트적 생산”의 의미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층위에서 “유일자”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길은 둘밖에 없다. 하나, 자신의 눈앞에 밥을 대령해주는 ‘비에 에고이스트’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자신의 에고이스트적 순수함에 감동 받으며 살아간다. 니트다.

망령에복무하면지는것이라고생각해야한다. 또다른하나, 광합성을의
한다. 아니, 엄밀하게는광합성마저태양이라는타자에의존하는것이므
로, 자가발전무한동력을신체적으로구성한다.

무한동력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

2. 슈티르너주의적사변 (邪辨)

앞서슈티르너의“유일자”에관한논거가관념의영역에서는아름답게
빛나지만결국그자체로는현실에적용하는것이불가능한사변思辨이라
는이야기를늘어놓았다. 하지만마찬가지로앞서말했듯이관념의영역에
서아름답지않은사상은없다.

이론적으로라면프롤레타리아독재는단순히이행기적과제를완수한
후스스로해소했어야한다. 하지만우리는소비에트조朝의붉은차르를보
았을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은백인의짐을지고유색인종들을계몽하여세
계를진보시켰을것이다. 레오폴트 2 세는콩고에서흑인들의손목을잘랐
다. 백인의침략에맞서아시아민족이함께맞서아시아를지켜내자던아시
아주의자들은결국귀족영미의항공모함에아시아민족들의제로센을들
이박았을뿐이다.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라면나치즘은레벤스라움을
확보한게르만족의총통에의해더나은세계를만들었을것이다. 더이상의
자세한설명은생략한다.

이는관념적으로아름답지만현실의영역에적용되면사이해지는사상
들을현실에역지로적용하면무슨사태가벌어지는지를보여주는사례의
일부에불과하다.

그리고우리는슈티르너주의의사변思辨을현실에교조적으로적용하
는시도들이사회의변혁과그를위한운동을저해한다고생각한다. 차라리
권위주의·전체주의적변설이라면안티·파시스트·액션이라도하겠으나
심지어자유주의적사변思辨이기에그또한난해하다.

그렇기에아래와같이슈티르너적사변思辨은, 현실에서사변 (邪辨:
사이한변설) 화된다고감히도전장을던진다.

2) 조합운동, 조직운동적관점에서슈티르너주의

우리는민주적·투쟁적·혁명적노동조합운동이혁명운동에있어무엇
보다도유미한수단이자, 목적그자체라고바라본다. 이는노동자들의
현장에기초한투쟁을통해노동조건을개선및방어하고, 결정적인국면에
서총파업투쟁을통해산업을노동자의자주적이고민주적인통제아래에
두며, 이러한조합들의연방적결합으로사회를재구성해내야한다는것이
다.

슈티르너또한노동자들의투쟁이중요함을역설한다. “노동자들의손
에는가장놀라운힘이쥐여져있다. 그리고만약그들이그것을정확히인지
하고사용한다면, 무엇도그들이길수없다. 그들은단지일하는것을멈
추고, 노동의생산물을자신의것이라선언하고, 즐기면된다. 이것이노동
쟁의의관점이다. 국가는노동의예속에의존한다. 노동자들이자유로워
진다면, 국가는사라질것이다.”

하지만우리는이지점에서오히려슈티르너주의와우리의조합주의운
동사이에메울수없는간극을본다. 슈티르너는파업투쟁을찬미하지만그
것을산발적인파업투쟁에만국한한다. 어째서인지는알수없다. 19 세기
중엽의산업현장이라는곳이단지노동자하나가결심하고일을멈추면멈
추는현장이었는지도모른다.(컨베이어벨트의등장이, 포디즘의등장이
1913 년이었으니가능한일이기는하겠다.) 혹은슈티르너가그저조직적
으로몽쳐하나로움직이는것을“망령”이라바라보아서일수도있다.

하지만우리는총파업을이야기한다. 모든산업, 모든노동은, 특히현
대사회에서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때문에개별의노동자들이일손
을놓는것만으로는‘그무엇도이길수없다.’현대산업구조에서노동은너무
쉽게대체된다. 내가홀로파업에돌입한다하더라도내옆자리사람이그자
리를메울수있다. 다른회사가그생산을대체할수있다. 조직되지않은파
업은체제에조금의균열도내지못한다. 슈티르너가말한것처럼하나의유
일자가“생산을멈추”면그는급여를받지못해굶어죽는다. 굶어죽지않기
위해“생산물을자신의소유라선언”하면, 그저그유일자가감옥에갈뿐이
다.

그리고이러한투쟁을위해필요한것이조직이다. 물론조직의속에서
개인이오롯한유일자로존재할수없는것은분명하다. 조직이라는것자체
가특정한목적의달성을위해자발적으로일정정도개별성을포기한인간
人間의모임이기때문이다. 하지만위에서언급한것처럼이를선택하는것
역시에도이스트적이다.

야말로내가체제에저항하고투쟁하는것의기저가된다. 하지만혁명을실질적으로만들기위해서는, 체제를파괴하기위해서는“나”뿐만아닌모든대중의투쟁이필요하다. 그렇기에혁명是大중에게체제의파괴이후새로운사회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

크로포트킨이『빵의쟁취』에서논한것과같이혁명에서가장중요한과제는혁명의첫날, 대중이배부르게먹는것이다. 이는경제의문제이자생산의문제다. 물질적이고물리적인문제다. 그리고꾸준히이야기해온것과같이슈티르너주의는이문제에대해해결책을제안하지못한다. 그해결책을제안하지못하면대중은혁명에나서지도, 슈티르너가말하는것처럼“반란”에나서지도못한다.

슈티르너는대중들이“의지적에고이스트”가되지못하여체제가유지된다고말한다. 그렇지않다. 대중들은언제라도체제를파괴할수있다. 다만파괴이후의물질적, 경제적삶에대한창조적대안이제시되지못하고있기에체제를유지하는것을의지적·비의지적으로선택하고있는것뿐이다.

혁명운동내에서는대안을제시하려는시도들이여러방향에서존재해왔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들이이야기하는코뮌에의한생산수단·생산물의공동소유가그리고, 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이이야기하는산업에대한노동자의직접적·민주적통제가그러하다. 동의여부를차치해봅시다. 사민주의 (혹은민사주의) 자들은소위복지사회를제시하며, 볼셰비키들은프롤레타리아독재에의한생산수단의국유화를제시한다.

새로운사회의경제적생활의재조직방식은당연히각정파, 분파별로다르다. 하지만다르다는것은서로논의가능하다는것이다. 최소한혁명운동이라는생각의틀은공유하고있다는이야기이다. 하지만우리는슈티르너주의와우리의혁명운동간공통분모를발견하지못한다. 슈티르너주의는경제적, 물질적대안을전혀제시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에우리는다시금슈티르너주의는반혁명적이라고말할수밖에없다.

단적으로말해서슈티르너는집세를내지못해감옥에갔다. 우유유통사업에실패했다. 슈티르너가에고이스트면어떻고, 유일자면어떻다는말인가. 그것은슈티르너를채권자들의추심으로부터구해내지못했는데말이다.

1) 혁명운동적관점에서슈티르너주의

해당부분을기술하기에앞서, 우리가합의한혁명운동이라는것이가지는의미에대하여서술해보도록하겠다. 우리는《대중이주도하는》《실질적사회혁명》을통해현존권위주의체계를분쇄하고, 개인의자유가최대한보장되는《새로운사회를건설하는것》을꿈꾼다. 그리고이를위한운동을혁명운동이라고정의한다. 때문에이에반하는것을자연스레반혁명이라부르게되는것이다.

그리고슈티르너주의가사변邪辨이라주장하는것은, 우리에게슈티르너주의가반혁명적이기때문이다.

그판단에대해서조금더세세하게이야기해보도록하자.

(1) 《대중이주도하는》

대중이주도한다함은혁명의주체가대중한사람한사람이어야한다는의미이다. 우리는모든대중에게그러한역량이있으며, 나아가대중만이그러한역량을가지고있다고바라본다. 현존하는체제라는것은대중이“그체제의유지가자기의이익에도움이되기에”유지하도록두는것일뿐이기때문이다.

국가라는예시를들어보자. 국가는개별인민이집단으로모였을때의이익이그러기위해포기해야하는손실보다더크기에만들어낸임의의집단일뿐이다. 그렇기에우리는아나키스트로써, 현대사회에서국가가나에게 (혹은인민에게) 주는이익이포기의비용보다크므로, 국가를해체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다른모든것들역시그러하다. 인간이종교를믿는것은종교로부터오는정신적만족감·소속감이눈에보이지않는신을주인으로섬기는비용보다크기때문이다. 신앙의비용이그편익보다클때면인간은언제라도배교를해왔다. 인간이계급적이익에복무하는것은, 자본주의라는체제에개인으로써투쟁하는것보다, 계급으로써투쟁하는것이개인의이익에더도움이되기때문이다.

이처럼대중은이미자신의이익에따라체제를구성하고있다. 그렇기에그체제를떨칠수있는것도오직대중뿐이다. 이것이우리에게있어혁명을주장하는기저가된다.

하지만슈티르너에게대중은어떠한가. 슈티르너는“망령”에복무하는개인을“비의지적에고이스트”라부르며그들이“망령”을강화·유지하는데복무한다말한다. 하지만여기에서궁금한점이생긴다. “의지적에고이스트”가구성한세계와“비의지적에고이스트”가구성한세계는그심층적부분을제외하고드러나는표층에있어무엇이다른가. 개인이“의지적”으로체제를유지하는것을결정하건, “비의지적”으로구성하건, 체제는존재하는것이아닌가.

“의지적에고이스트”가“유일자”로써체제를박차고떨쳐낼수있다면“비의지적에고이스트”또한가능하다. “비의지적”으로“에고이스트”적선택을하면체제를강화하기만한다니. 얼마나대중을신뢰하지못하고있는것인가.

(2) 《실질적사회혁명》

실질적사회혁명을추구한다는것은우리가추구하는사회혁명이지금히실질적이고물질적이며물리적인세계, 즉우리가사는이땅에발을디디고이루어져야한다는의미이다. 다시말해현실적인제약조건을고려하는가운데전술적이고전략적인투쟁을통해압제자를타도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렇다면현실적인제약조건은무엇인가. 현재의예시를들어본다면, 자본주의, 국가, 도덕, 정의, 또는다른그어떠한추상적인관념들이물질적실체를가지고대중을압제하고있다는것이라할수있겠다. 원래는인간이더 나은삶, 더많은이익, 더큰즐거움을위해만들어낸‘관념’들이, 어느덧실체를가지고인간위에군림하고있는것이다. 보드리야르의말을빌리자면‘시물라크르’로전용轉用되어버린‘시물라시옹’이다.

이는단순한“망령”이아니다. 실체를가진환상, ‘괴물’이라부르는편이오히려합당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단순히“유일자됨”으로, 또“망령”을떨쳐내는것만으로는혁명을할수없다. ‘괴물’은맞서싸워퇴치해야하는것이다. 혼자떨쳐일어나면잡아먹히는결과가있을뿐이다.

그리고‘괴물’과싸우는것은단지한개인, “유일자”만의힘으로는불가능하기에우리는조직을이야기한다. 대중을조직하고, 조직된대중을통해괴물과맞서싸우며, 그싸움을통해또다른대중을조직하고. 이로써엔젠가‘괴물’을쓰러트리리라는희망을만들고자한다. 하지만슈티르너는

조직되지않은산발적인반란만을이야기한다. 그리고역사를돌이켜보면, 이러한산발적인개인의반란들은결국깨어지고, 그저반동의강화에복무해왔다는사실을수없이발견할수있다.

물론슈티르너또한“에고이스트동맹”을이야기한다. 하지만그“동맹”이혁명의과정에서어떠한역할을할수있을지는미지수일뿐이다. 그가그리는“동맹”의상은“망령”을떨쳐낸개인, “의지적에고이스트”들의모임이다. “동맹”의상상도는아름답다. 하지만앞서말했듯체제는단순한“망령”이아니라, 물질적실체를가진‘괴물’이기에, ‘괴물’을타도하지못하고단순히눈을돌렸을뿐인이들의“동맹”은괴물의예비희생자에불과하다. 잘쳐줘봐야괴물의눈을피해잠시숨어있을수있을뿐이다.

지난백수십년간아나키스트들은무수히많은공동체들을꾸려왔다. 하지만그공동체들중유의미한변혁적힘을가지고개인들의삶을실질적으로변화시킨곳은몇되지않는다. 그리고그러한공동체, 간단히예를들자면로자바 Rojava 나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의공동된특징은공동체가생산수단을점유, 주장하여실질적인투쟁을만들어냈다는데에있다.

아나키스트몇사람이시내옥탑방하나를차지하고소주잔을기울이며“이곳이우리의에고이스트동맹(코뮌)”이라고, “이곳은우리의소유”라고선언한다고해서, 그곳이해방구가되지는않는다. 하다못해옥탑방월세를고민해야하고, 소주를살돈을고민해야하는것이다.

체제는단순히그구성원들이떨치고일어나남으로자연해소하지않는다. 체제는그구성원들이떨치고일어나스스로단결하여투쟁하고그것을통해타도되었을때비로소해소된다. 그리고이투쟁의기반이되어야하는것은“유일자”동아리가아니라자신의이해관계에따라경제적으로단결한인민대중의조직이다.

(3) < 새로운사회의건설 >

바쿠닌이『독일에서의반동』에서논하였듯이“파괴적열정은창조적열정이기도하다.”우리는이를다음과같이독해한다. ‘창조적열정이없는파괴적열정은없다.’

앞서논하였듯이인간은자신의이득을위하여집단을구성하였다. 그렇기에그(체제라는‘괴물’이된) 집단이외려‘나’의이득을해친다는것이